

이렇게 수출했다, 을파소의 《열세 살 키라》 원저작권 계약 해외판권 확보, 하지만 부족했던 전문성

글_ 김혜영(을파소 플래너&마케터)

2003년 10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우리에게 특별했다. 독일작가 보도 새퍼와의 출판계약에 중지부를 찍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출판 제안과 수개월 동안의 계약조건 조율을 거쳐 거둔 성과였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기본 경제개념을 깨친 키라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우쳐 가는 성장동화” 《열세 살 키라》가 출간됐다.

보도 새퍼에게 처음 《열세 살 키라》의 출간을 제안한 것은 2003년 3월이었다. 당시 그의 작품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2001년 8월 출간)는 어린이 경제교육의 붐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키라’를 모르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마니아층도 형성되었다. 우리는 ‘열두 살 키라’의 확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후속작의 출간이 기획되었다.

보도 새퍼는 우리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경제·경영컨설팅팀에게 한국과의 저작권 계약이 가져올 가치와 실리에 대해서 많은 저울질을 하는 눈치였다. 망설이는 그를 서울로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2003년 4월 21일 열린 강연회에는 6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보도 새퍼는 이곳에서 한국 독자들의 높은 호응도와 열정을 실감하였다. 강연회에 참석한 독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지지 등에 감동을 받은 후, 을파소를 원출판사로 하는 계약은 급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해외 유명 저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한국 출판사의 구조로 모두 수용하기에는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전 세계 판권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북미유럽권 7개국을 제외한 해외판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열세 살 키라》는 일본의 구용사(九龍社)와 저작권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대만과 중국과도 저작권 계약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열세 살 키라》역시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와 마찬가지로 저학년을 위한 만화 버전이 나와 있으며 CD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학교 등에서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만, 중국 등에 저작권 수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해외판권을 사와 번역·출판하는 비중이 30퍼센트 이상 육박하는 국내 출판시장에서 글로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해외 유명작가와 직접 원저작권을 계약, 해외판권까지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았다.

우선 우리는 전문 에이전시나 저작권 전담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자와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의견 조율에서 행정적인 문제까지 순탄치는 않았다. 앞으로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며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 아시아의 타 국가들과 공동기획을 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 이는 국내 시장이 포화인 상태에서 더 큰 시장을 겨냥할 뿐 아니라 초기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방안도 된다. 《열세 살 키라》의 해외판권 수출은 아직 진행중인 상태라 대차대조표를 맞추기엔 이르다. 일본에서의 판매 추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확산 여부 등을 좀더 지켜보야 득실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